

하루를 시작하며



강 문 신
시인

그냥 볼 뿐, 바다에 들어본지도 고기를 낚아본지도 몇 십 년이 되었다. 농장에 갔다가 포구 쪽에서 점심 먹을 땐, 식후 꼭 남원바다 해안도로에 차를 세워, 바다를 본다. 잔잔한 물결을 본다. 고기 낚는 사람들 바닷 잡는 사람들을 본다, 멀리 노란 등대를 본다. 아득 지귀도 해역에 한가로이 떠있는 배들을 본다. 하릴없이 떠도는 갈매기도 보곤 하는 것이다. 의자를 찌고 누워, 일간지를 펼쳐든다. 경제 잡지를 본다. 코로나19를 본다. 바둑 연재를 본다, 그 대마의 생사를 곱곰이 본다. 정은의 사망 설을 본다.

가족객주리

선거판을 본다. 제 입으로 제 자랑하는 이들, 그토록 목이 쉬도록 제 자랑하는 이들, 허구헌날 수도 없이 그 자랑을 반복하는 이들, 살면서 자랑할 일이 그렇게도 많을까? 한시도 쉬지 않는 그 입, 아프지 않을까? 지치지 않을까? 허탈하지는 않을까? 활극드라마 재방송 같은 정치, 그 살벌한 난장판을 매일 보는 눈이 피곤하다. 그 눈을 지그시 감는다. 10여분의 꿀잠... 삼기일전, 새 기운으로 다시 농장을 향하는 것이다.

옛날, 작살 하나 들고 바다에 들 땐, 깊은 물에서 큰 고기를 많이 잡 아도, 갯가로 나오면서는 으레 가족 객주리 몇 마리를 더 쏜다. 점심 횡감으로 그만한 것이 없기 때문이다. 손바닥 보다 좀 큰 그 녀석들은 작살을 들이대도 그냥 그대로 태평이다. 백발백중, 마음만 먹으면 언제나 잡을 수 있기에, 바로 먹을 만큼만 잡는다. 가족을 짝~ 벗기면 포동포동

운이 나는 하얀 속살, 초장에 찍어 먹으면 세상에 그보다 더한 점심이 아직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때도 예의 그 작살을 들이냈는데 웬걸, 객주리가 황금히 몸을 비친다. 표적 부위를 최소화 하며 손살같이 도망치는 것이었다. 어쩐 일인가, 대체 무슨 일이 있었나? 우금바당 망쟁이 바당 소금막바당 웃수물 맹제미코지를 다 다녀 봐도, 녀석들 한결같이 똑 같은 자세로 도망치는 것이었다. 어떻게 온 바다의 가족객주리가 일시에 그렇게 돌변할 수 있을까? 당시 그들에게 이미 통신망이라도 갖춰졌었다는 말인가? 그래서 밤새 피신교육이라도 받았단 말인가? 그렇다 해도, 그런 교육을 어찌 단시간에 그리도 완벽하게 소화할 수 있었느냐는 점이다.

우리 사람들은 어떨까? 잊을만하면 터지곤 하는 화재나 공사현장의 대형 사고 말고라도, 국가나 사회단체 우리

개개인의 일상까지 무수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도, 여전히 그 우(愚)를 범하고 있지 않나. 그러기에, 그들의 민첩성과 일사분란한 그 상황대처가 놀라운 것이다. 가능할까, 그 가족객주리를 한번 대면하고 싶다.

석파시선암(石播詩禪庵) 철쭉이 만개됐다. 몇 년 전에 심어놓은 것들이 훌쩍 자라 흐드러진 것이다. 그 철쭉 활활 타는 외길을 헤쳐가면 시선암이다. 저기, 암벽의 고목들을 보라. 우리가 어렵고 어렵다한들, 그 고목들만 큼이야 하라. 이 들녘 허구많은 땅 중에 어찌다 암벽에 점지되어, 바늘귀만 한 틈새를 비집고 얹힌 저 뿌리들을 보라. 진력한 한 생의 처절한 그 몸부림을 가만 보라. 그 순명(順命) 앞에 서면, 절로 고개가 숙여지는 것이다. 아픔이사 오롯이 가슴에 묻고, 넉넉히 그늘 드리우는, 못 세도 포근히 감싸안는, 산노루 고라니도 마다않는, 그저 묵묵 말이없는... 저 고목들.

열린마당

세계 펭귄의 날



강 명 곤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지도팀장

남극의 새하얀 얼음 밭에서 두발로 뒤통거리고, 자신의 배로 미끄러지기도 하는 펭귄은 특유의 귀여움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폭넓은 연령층에 인기가 있는 캐릭터 ‘펭수’, 어린이들의 대통령 ‘뽀로로’의 실제 모델이기도 하다.

남극 생태계의 지표이기도 한 펭귄은 북극곰과 더불어 지구온난화로 인한 피해를 가장 많이 입고 있는 동물이다. 펭귄 개체 수 감소는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2017년 남극에서는 갓 태어난 아델리 펭귄 수천 마리 중 단 2마리만 살아남는 비극이 일어나기도 했다. 이상기후가 감지되기 전에는 일어나

지 않았던 일이라고 한다. 남극의 기온 상승으로 눈보다 비가 많이 내리고 있다. 펭귄세계의 숨길에는 방수기능이 없어 혹한의 날씨에서 비를 맞고 얼어 죽는 수가 많다. 펭귄들의 먹이 중 하나인 크릴새우는 빙하의 감소와 불법 조업으로 인해 개체 수가 줄어지고 있다. 더 먼 바다로 먹이사냥을 갈 수밖에 없는데, 이 과정에서 수많은 새끼 펭귄들은 피해자가 된다.

지난달 25일은 ‘세계펭귄의 날(World Penguin Day)’이다. 지구온난화와 서식지 파괴로 사라져가는 펭귄을 보호하고, 기억하자는 의미로 지정됐다. 현재 18종의 펭귄 중 절반 이상이 10종의 펭귄이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의해 보호받고 있다.

펭귄의 날을 기억하고, 사라져가는 펭귄과 남극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보면 어떨까? 에너지 절약과 재활용 생활화, 대중교통과 자전거를 이용하는 등 지구의 온도를 낮추는 노력들이 필요하다.

※ ‘오피니언’ 편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뉴스-in

원 지사-국회의원 당선인 첫 간담 추진

“이달중 개최 목표 조율”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지난 4월15일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당선인간 첫 만남이 이달중 이뤄질 전망이다.

12일 제주도에 따르면 도는 이달 중 간담 개최를 목표로 현재 송재호(제주시갑)·오영훈(제주시을)·위성곤(서귀포시) 당선인과 일정을 조율중.

도 관계자는 “날짜는 아직 유동적”이라면서 “향후 간담회는 현안사항을 공유하고 제주에 필요한 사업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 가 될 것”이라고 언급. 오은지기자

이태원 방문 외국인 ‘음성’

○…최근 이태원을 방문했던 한 외국인이 11일 서귀포시의 한 병원을 내원한 사실이 알려지며 방문객들이 기피하고 있어 앞선하지 못하고 있다”며 “외국인 근로자 선호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고 있는 것 같다”고 언급. 고대로그기자

방문했음을 알리면서 즉각적인 코로나19 검사가 시행됐지만 12일 오전 음성으로 판정. 서귀포보건소 관계자는 “A씨는 코로나19가 전파된 해당 클럽을 방문하지 않았고 코로나19 검사도 음성으로 판정돼 해프닝으로 끝났다”며 안도. 김도영기자

활용되지 않는 영농지원인력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가 올해 영농 지원 인력을 모집했으나 농가에서 이들을 활용하지 않고 있어 난감.

제주지역본부는 도내 고령농가 등의 일손을 지원하기 위해 영농지원 유상 인력 250명을 모집했으나 이들을 원하는 농가는 현재까지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태.

제주지역본부 관계자는 “인제 일할 수 있느냐는 문의가 오고 있지만 농가들이 기피하고 있어 앞선하지 못하고 있다”며 “외국인 근로자 선호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고 있는 것 같다”고 언급. 고대로그기자

사설

등교도 급하지만 ‘학생 안전’이 중요하다

코로나19 사태가 빠르게 진정되려는 듯싶었습니다. 실제로 최근 며칠동안은 국내 신규 확진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황금연휴가 끝나자마자 서울 한복판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면서 다시 일상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이 재확산하면서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수업이 모두 1주일씩 연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11일 학년별 등교 수업일을 1주일씩 미룬다고 발표했습니다. 서울 이태원 클럽에서 시작된 집단감염이 심각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당초 13일로 예정됐던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의 등교 수업일은 20일로 연기됐습니다. 고2·중3·초1~2·유치원생 등교는 27일로 늦춰졌습니다. 고1·중2·초3~4학년 등교는 6월 3일, 중1과 초5·6학년은 6월 8일 등교합니다. 교육부는 방역 당국의 역학조사 결과 등을 고려해 등교 추가 연기 여부를 이

달 20일쯤 발표할 예정입니다.

일부 젊은이들의 안전한 방역 인식 때문에 학생들을 울리고 있습니다. 등교만을 손꼽아 기다리던 학부모까지 큰 환란에 빠뜨리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이번 등교수업 연기는 다섯번째입니다. 등교 일정이 연달아 바뀌면서 대학입시를 준비해야 하는 고3 학생들의 마음은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차라리 재수시켜 달라”는 얘기까지 나오겠습니까. 문제는 정부가 등교일을 1주일씩 순연했지만 예정대로 등교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앞으로 이태원 클럽발 감염 확산 추이에 따라 추가 연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걱정입니다. 등교가 시급한 상황임을 모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학생 안전’이 우선돼야 합니다. 그러려면 정부는 방역의 고삐를 바짝 죄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이태원 클럽발 2차 감염이 늘고 있는데다 지역감염이 퍼지고 있어 더욱 그렇습니다.

차도로 내몰리는 교통약자 불편 언제까지

제주지역 도심지 곳곳에 교통약자의 통행을 막는 장애물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사회 전반에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개선이나 프로그램 개발 등의 후속조치는 잇따르고 있지만 정작 교통약자 통행을 힘들게 하는 현장 장애물 개선은 요원한 실정입니다.

더욱이 교통약자들의 통행 장애물 문제는 그간 수없는 문제 제기에도 부분 개선에 그치면서 큰 효과를 못 내 전수조사를 통한 전면 개선의 필요성이 큰 상황입니다.

실례로 제주도 용담·외도동 지역의 경우 교통약자들의 대표적 이동수단인 전동휠체어와 스쿠터 등을 인도를 통해 이용하면 맨홀 등 시설물이 설치돼 있거나 가로수나 버스정류장에 막혀 좁아진 인도 때문에 통행을 못해 차도로 지나가야 하는 장소들이 적지않은 실정입니다.

인도 한가운데에 불법으로 주차된 차량도 교통약자들에게 큰 장애물입니다. 여기에다 급경사 인도구간이나 울퉁불퉁한 보

도블럭까지 감안하면 전동보장구의 방해요인은 곳곳에 수도룩합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전동보장구는 자동차가 아닌 ‘보행자’로 취급돼 인도로 다녀야 하지만 현실은 도로로 내몰리는 형국입니다. 교통약자들이 인도통행 장애요인 때문에 차도로 내몰리면서 실제 차도 사고로 이어질 경우 전동보장구를 운전한 당사자가 전적인 보상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다보니 장애물 개선은 더욱 절실합니다.

제주시는 현재 잦은 민원 접수 구간을 중심으로 교통약자 보호시설 정비공사를 벌여 오는 7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행정은 도내 전역을 대상으로 교통약자들의 통행을 막는 장애물 실태를 전수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도폭이 좁거나 가로수·버스정류장 등의 장애물이 있는 경우 일정 예산을 들여 공사를 벌여야 하는 만큼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역별 전면 개보수에 나서야 합니다.

부 고

오원일(제주고 교사) 어머니 동래정씨
영춘(향년 88세)께서 서기 2020년 5월 12일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 ▶일 포: 2020년 5월 14일(목요일)
- ▶발인일시: 2020년 5월 15일(금요일) 오전 8시
- ▶발인장소: 성산읍 공설공원묘지
- ▶장 지: 성산읍 충훈묘지

아 들 오원일 며느리 강맹숙
원종 룡다비
딸 오복실 사 위 김문태
은실(故) 고광협
순실 선병호
현실 강성근
정실 현인호
손 자 오정현

※연락처
오원일 010-9838-1073 선병호 010-3694-6510
오원종 010-2681-4309 강성근 010-7666-0522
김문태 010-3694-1436 현인호 010-5552-0986
고광협 010-2698-4439

부 고

고문심(제주학생문화원 교육연구사)
남편 강정윤(前 중등교원·향년 58세)께서 서기 2020년 5월 12일 오전 6시50분경에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 ▶일 포: 2020년 5월 13일(수요일)
- ▶발인일시: 2020년 5월 14일(목요일) 오전 7시
- ▶발인장소: 부민장례식장 3빈소
- ▶장 지: 양지공원

부 인 고 문 심
아 들 강 지 웅
딸 강 문 영

※ 연락처 : 고문심 010-2695-4657
강문영 010-5145-4657
강지웅 010-6613-4657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어머니 순흥안씨 한수(향년 104세) 상사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 드립니다. 일일이 찾아 뵙고 고마운 말씀을 올림이 도리어오니 우선 지면을 빌려 인사를 올립니다.
2020년 5월 13일

아 들 김영범 며느리 고영자
영준 김복희
영남 진영희
영천 진영화
딸 김부자 사 위 김영기
문자 강태현
영순 양석관
영미

급 매

- 품 목 : 윤석 1점
- 감정가 : 20억원
- 조 건 : 매매 또는 대물교환

연락처
010-4855-6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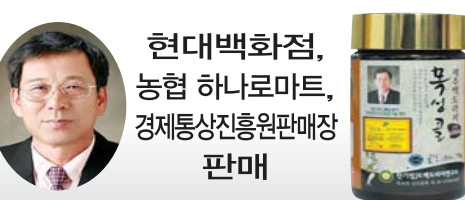
(주)제주그림

2020년 4월 17일

법인 설립

백도라지 분말

관심과 사랑 주신에 이룬 성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약백도라지 분말 100% 목성콜
미국식품의약국인 SCI A급 등록



전화 064-783-8987, 010-5755-8987, 상담 010-2691-9316
홈페이지 : http://www.baekdoraji.com

주산지 선홍2리 용암동굴계 거문오름 일대지역

한기림JK약백도라지연구소

전기차
사고 팝니다.

evworld.kr

(주)전기자동차
제주시 일주서로 7714(도두일동)

1544-8236

방수 단열
우 레 탄
우 레 아
석 주 개 발

☎ 712-3644, 782-3644
010-4690-3636